



보도시점 2024. 9. 11.(수) 11:00 배포 2024. 9. 11.(수) 09:00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기관 역량, 검역본부가 더욱 강화한다

- 검역본부, 하반기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 및 항체 검사의 정확성 평가 결과, 모두 적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및 진단 검사에 참여하는 전국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단 숙련도 평가(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정도관리 :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결과치가 확인된 물질(정도관리물질, 시료)을 정보 가림상태로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8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배부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 성적으로 각 기관의 진단 역량을 검증했다.

평가에 앞서, 검역본부는 전국의 진단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질병과 진단 이론, 항원 및 항체 진단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해 진단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신속·정확한 진단이 성공적인 방역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전국의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숙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진단 역량 향상 및 표준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며,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은 축산 농장방문 자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교육 사진

담당 부서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책임자	과 장	강해은 (054-912-0857)
		담당자	연구관	김연희 (054-912-085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이론 교육(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이해)



실습 교육(항원 및 항체 검사)